

## 대 학 평 의 원 회 회 의 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5. 1. 13(화)
의 원 정 수 : 11명	출석의원 : 8명

1. 회의일시 : 2015년 1월 22일(목)

2. 회의장소 : 9동 2층 대회의실

3. 의원 출결 현황

가. 출석의원(8명) : 정현준, 박종운, 이기욱, 김종기, 박보현, 박지환, 황철하, 신희진

나. 불참의원(3명) : 이명구, 장수진, 김석주

4. 회의안건

- 2015학년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및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안) 자문
- 2015학년도 교육과정 자문
- 기본재산매입 보고 및 자문

5. 회의내용

(정현준 위원장) 먼저 바쁜 중에도 이렇게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명구 위원, 장수진 위원, 김석주 위원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대신 저에게 금번 자문안건에 대해서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만 평의원회 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출석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인 8분이므로 회의를 개최하겠음을 선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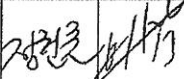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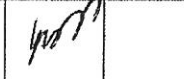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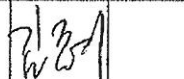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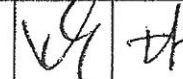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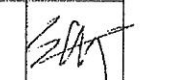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제38대 총학생회장이며, 대학평의원회 신임 의원으로 추천된 임상병리과 신희진 총학생회장을 소개하다. (인사말과 환영박수 이어짐)

부의 안건은 제1안이 2015학년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및 장·단기 재정운영 계획(안)이고 제2안은 2015학년도 교육과정 자문, 제3안은 기본재산 매입에 대한 보고 및 자문 안건임을 말하다.

제1안 2015학년도 교비회계 본 예산안 및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자문의 건

(김익진) 안녕하세요. 재무팀장 김익진입니다.

김익진 : 2015년 교비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올해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지만 국가장학금 정책에서 올해가 반값등록금 실현의 해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전입금 수입을 증가시켰는데 이것은 3월부터 신규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이며,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 추경을 해서라도 학교로 전출을 하겠다고 말하다. 투자자산에서 작년과 다르게 수익사업부분은 서점, 스토어 등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생활관 임대보증금제도는 학생들이 시설이나 집기 등을 훼손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임을 말하다. 올해 등록금이 동결되었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은 2014년 수준으로 맞추었으며 결과적으로 2015년 교비회계 총 세입은 육백오십일억으로 편성했음을 설명하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이기욱	박종운	이명구	김종기	장수진	박지환	박보현	황철하	김석주	신희진
										

지출부분에서는 보수는 교직원 인건비, 강사료 등이 있으며, 교육환경개선 및 일반관리비에서 도서관 냉난방, 주차차단기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있으며,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 관리비 등도 비용금액을 2014년도 수준에서 동결했으며 물가상승에 의해 금액상승이 발생하면 추후 조정할 계획임을 말하다. 또한 실험실습비, 통학버스비 등은 특성화사업비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과 비교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지급율이나 평가요소에 반영되는 항목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와 기타자산에서 단기에치급 중 회수된 부분은 제에치하고, 기타기금에서 장학기금으로 받은 부분을 제에치할 계획이며, 비등록금회계에서 단기운영수익과 발전기금 금액을 합쳐서 기타기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고정자산 취득에서는 교육용 기본재산에 캠퍼스마스터플랜에 의한 토지구입 등 13억을 편성했고, 기자재 및 집기비품은 특성화사업 등 국고보조금과 연계해서 취득할 계획이므로 2014년 수준으로 맞추었으며, 전체적으로 총지출 육백오십일억으로 편성했음을 설명하다.

김익진 : 이어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다.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은 예산 편성시 각 부서의 목표와 세부계획을 파악한 재정계획을 세워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재정운영에 있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뿐만 아니라 부서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말하다. 이어 등록금 수입은 편제정원 감소에 의해 현 상황에서는 다소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와는 상대적으로 비등록금 회계에서 수익사업을 통해 등록금회계의 부족분을 상쇄하기 위해 관련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하다. 결국 편제정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운영계획도 그 금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다.

김종기 : 투자자산에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묻다.

김익진 : 서점, 식당, 스토어 등을 운영하며, 그 이외의 학생복지 부문에 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다.

김종기 : 수익사업도 좋지만 학교기업으로 사업종목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면 어떤지 묻다.

김익진 : 학교기업은 대학의 학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종목이 제한적이어서 현 법체계에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업종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 제한이 완화될 때까지는 현행 노인요양원 운영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박종운 : 중장기 재정운영계획 이전에 재정을 사용하려면 대학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대학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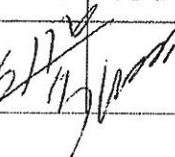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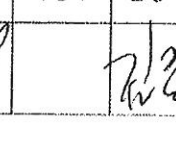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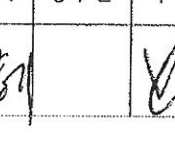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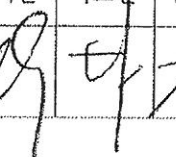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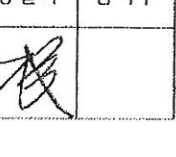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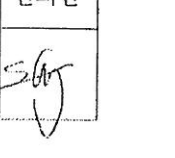

김익진 : 중장기 대학의 마스터플랜은 이미 2년전에 수립하였으며, 당시 계획은 캠퍼스마스터플랜을 계획했다가 지금은 계획이 계속 변경 중에 있고, 2018년 이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전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업위주로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했으며,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은 빠져 있다고 언급하다.

박종운 : 교원확보율이 너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고, 지출부분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다.

김익진 : 교원확보율 부분은 여러 사업별로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명해 드리겠으며, 지출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겠다고 말하다.

박종운 : 2015년 본 예산에서 학생지원비가 줄어든 이유를 묻다.

김익진 : 등록금 수입 감소를 고려하여 작년에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 예산대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하다.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이기욱	박종운	이명구	김종기	장수진	박지환	박보현	황철하	김석주	신희진
										

또한, 부족한 부분은 국고사업에서 연계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그럼에도 예산과 맞지 않으면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계획임을 말한다.

박종운 : 서점 등의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묻다.

김익진 : 이 부분은 대학의 직원들이 틈틈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박종운 : 현 상황은 그렇지만 향후 수익사업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되어야 하며 세부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으므로, 수익사업에 대한 세무관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다.

정현준 : 학생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교직원에 대한 예산 투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질의하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왜 없는지 묻다.

김익진 : 교육과정 부분에서는 금년에 NCS 교육과정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의 지원은 특성화 예산에서 일부 감당하고 있으니 실제 예산의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교직원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을 위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건강검진비 지원 등이 있으며, 교직원 실력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 제2안 2015학년도 교육과정 자문의 건

(김경한) 안녕하세요 교무과장 김경한입니다.

김경한 : 지난해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교육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좁고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온 것을 반영하고 다양해지는 교육수요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융·복합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타과강의를 지금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타과의 전공과목을 이수했을 경우 교양과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HIT-LOC이라고 명명하는 우리대학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NCS센터 주도하게 개발하게 되었으며, 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소개드리고 자문을 구하고자 함임을 말한다.

이기욱 : 강의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하다고 보면 소수의 인원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전보건대학의 폐과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하다.

김경한 : 지금까지는 15명 미만이 되면 강제적으로 폐과를 했었는데, HIT-LOC체계에서는 수강인원수가 적더라도 즉 15명이하가 되더라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정현준 : 수강신청자가 15명 이하라면 소수의 사람이 신청할 경우도 있는데 우리대학의 실정상 모든 강좌를 모두 개설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김경한 : 원칙은 수강신청자가 15명 이하이더라도 강좌를 개설하는 것으로 하지만, 실제 우리대학의 강의실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 수업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 제3안 기타 안전 교육용 기본재산 보고 및 자문에 관한 건

박의수 :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교원 숙소로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함이며,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근처 대로변 공간확보를 통한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대학 주변의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함임을 보고하다.

정현준 : 대학에서 캠퍼스 환경은 중요하며, 대학재정계획에 무리가 없다면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을 언급하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묻다. 이에 다른 의원 이의 없이 부의안전에 대해서 동의하므로, 세 건의 자문을 마치고 회의를 종료하다.(18:04)

< 참석평의원 간서명 >										
의 장 정현준	이기욱	박종운	이명구	김종기	장수진	박지환	박보현	황철하	김석주	신희진
